

얼어붙은 차 내수시장… 완성차 5社 글로벌서 승부

현대 내수·해외 판매 모두감소
기아 셀토스 판매량 확대 집중
한국지엠 '스파크' 내수 실적 리드
르노삼성 르노마스터 40% 실적 증가
쌍용 코란도 신차효과에도 실적 감소

국내 완성차 업계가 8월 내수와 해외 판매 실적에서 온도차를 기록했다.



2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5만2897대, 해외 31만148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6만3045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9.7% 감소, 해외 판매는 5.5%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쏘나타와 그랜저 등 세단이 2만12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가 2071대, G70가 1471대, G90가 1039 대 판매되는 등 총 4581대가 판매됐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과 고객 인도가 진행되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원활한 판매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판매는 중남미, 러시아 등 신 흥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과 판매 부진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둔화 및 통상 환경 악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고객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4만3362대, 해외 18만5509대 등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2만8871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9% 감소, 해외 판매는 3.0%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7775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됐으며 K3(포르테)가 2만5419대, 리오(프라이드)가 2만4704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는 출시 한 달 만에 6109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소형 SUV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셀토스의 판매량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2만4517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다. 내

수는 641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지만 수출은 1만81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쉐보레 '스파크'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3618대가 판매되며 전체 내수 실적을 리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달 달성한 올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두 달 연속 월 3000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랙스'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1047대가 판매되며 스파크의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4.9%가 증가한 수치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은 지난달 더 뉴 QM6 인기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난 7771대 판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은 5216대를 기록했으며 총 1만2987대의 월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더 뉴 QM6는 전월 대비 5.7% 증가한 4507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주도했다. 특히 국내 유일 LPG SUV인 LPE 모델이 전체 QM6 판매의 61.3%를 차지(전월 대비 2.3% 증가)하며, 더 뉴 QM6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 르노 마스터는 328대 판매되며 전월 대비 40.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 중 마스터 밴이 172대,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미니버스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마스터 버스가 156대 판매되었다. 르노삼성 수출은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3750대, QM6(수출

명 르노 폴로스) 1466대로 총 5216대가 지난달 판매됐다. 르노삼성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8038대, 수출 1977대를 포함해 총 1만15대를 판매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규모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 및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경쟁 심화 영향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내수에선 코란도 신차 출시 효과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13일 기술린 모델을 추가한 코란도가 전월 대비 39.4%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는 내수 판매가 3.3%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4% 감소했지만, 코란도 선적이 진행되면서 반조립제품(CKD)을 제외한 완성차 수출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광주 통합물류센터_12m 높이의 6단선반

홈쇼핑, 물류·배송 차별화에 '역량 집중'

CJ ENM 오쇼핑

새벽배송 품목 카테고리 확대
 '주문 24시간 내 전국 배송' 실현

빠른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온·오프 라인 유통채널이 물류와 배송을 강화하는 가운데 홈쇼핑도 가세했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이트 렌드모니터가 배달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3%가 앞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홈쇼핑은 새벽배송 대상 품목을 전 카테고리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2일 CJ ENM 오쇼핑에 따르면 9월부터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해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주문 24시간 내 전국 배송'을 실현한다.

CJ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 허브 터미널'에 위치한 통합물류센터는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하역장까지 1시간에 최대 2800상자를 운반할 수 있는 층간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평균 배송시간을 기준 대비 약 12%(200분) 단축시켰다.

보관 창고와 택배 분류장이 층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중

간 운송 및 하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류, 배송이 가능하다.

배송시간이 단축되는 제품은 CJ오쇼핑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센터 배송' 상품으로 주로 TV홈쇼핑 판매상품이나 온라인 직매입 상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오전에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량은 그날 저녁 10시 이전에 당일배송 서비스로 받게 된다.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주문된 상품은 다음 날 밤 10시 이전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주문마감 시간이 동종업계 대비 4~6시간까지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지정일 배송서비스 대상도 순차적으로 늘려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통합물류센터는 기존에 경기도 군포와 부곡 등 다섯 곳에 분산됐던 물류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을 높였다. 보관 가능한 물동량은 기존 대비 44% 가량 늘어났다.

물류 역량이 강화된 만큼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창고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에 보관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물류 기반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상품 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G 품에 안긴 동부제철… 재 창업 선포

"다시 창업하는 마음으로 재도약"

경쟁력 강화 중장기 로드맵 발표

동부제철이 5년간의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KG동부제철로 공식 출범했다. 동부제철은 지난 2014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개시 이후 5년 만에 KG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KG동부제철은 2일 서울 종구 KG타워에서 'KG동부제철 출범 및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KG그룹 과재선 회장이 직접 KG동부제철 신임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과 회장은 취임사에서 "1954년 일신제강에서 시작한 동부제철이 올해로 창업 65주년을 맞았다"며 "KG그룹의 일원으로 합류한 KG동부제철을 다시 한번 창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강한 기업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KG동부제철은 이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사업구조를 수출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KG동부제철의



2일 오전 서울 종구 KG타워에서 열린 KG동부제철 공식 출범식 및 회장 취임식에서 과재선 KG동부제철 회장, 이세철 사장 등 신규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철강 생산량은 260만톤(t)으로 이 가운데 내수와 수출 비중은 55대 45 정도다.

이 같은 사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 내년까지 내수와 수출 비중을 45대 55로 역전시키고 2021년에는 40대 60으로 수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KG동부제철은 "과회장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모든 고객사를 찾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세일즈 경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 사업인 '컬러강판' 경쟁력을 강

화한다는 뜻도 밝혔다. KG동부제철의 주력 제품인 컬러강판의 국내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약 20%이다. 현재 인천공장에 4기의 컬러강판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50만톤(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KG동부제철은 그동안 경영 위기로 인해 신규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생산기지인 충남 당진공장에 1200여억원을 투자해 연 생산량 60만톤(t) 규모의 컬러강판 생산라인 4기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미국 유턴기업 매년 482개, 한국은 10.4개사에 불과

미국은 해마다 482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한국은 '유턴기업'이 10.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기업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아너셔티브에 따르면 유턴 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미국은 2013년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유턴 기업이 차지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이 총 975명으로, 연평균 19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턴 기업 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은 19개, 미국은 109개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미국에선 대기업들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2018년 상반기까지 유턴 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는 애플 2만2200여개, 제너럴모터스(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양성운 기자